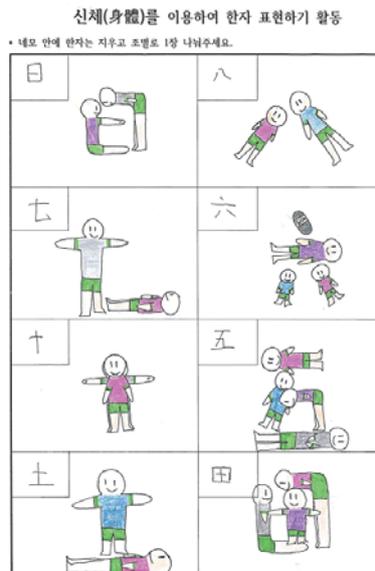


교사-학생이 함께하는 수업 혁신

전국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수업 혁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이 늘어나면서 수업 혁신의 방식도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지요. 이 코너에서는 하브루타(chavruta), 비주얼 씽킹(Visual Thinking), 소프트웨어(software) 교육 등의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혁신해나가는 교사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수업을 진행한 교사의 조언을 들어봅니다.

8월호에서는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비주얼씽킹 수업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비주얼 씽킹은 생각과 정보를 글과 도형, 기호, 화살표 등을 활용한 시각적 표현으로 체계화하는 공부법입니다.

경기 도당중 배정화 교사의 비주얼 씽킹 수업 비주얼 씽킹, 효율은 더하고 협력은 높이고



까치울중 학생들이 신체로 한자어를 표현하는 활동에서 만든 비주얼 씽킹 결과물. 배정화 교사 제공

한문은 중학생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과목이다. 한글 또는 영어와 비교하면 글자 당 획수가 훨씬 많은 한자를 ‘그림 같아서 따라 쓰기 힘들다’ ‘외국어 같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부지기수. 배정화 경기 도당중 한문교사(올해 2월까지 까치울중에서 근무)는 학생들이 한문을 낫설고 어려운 과목이 아닌, 재밌고 유익한 과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수업에 비주얼 씽킹을 접목시켰다.

비주얼 씽킹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이미지나 글로 표현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배 교사가 비주얼 씽킹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건 한자를 신체로 표현한 뒤 사진으로 찍는 ‘너와 내가 합체하면 우리’, 그리고 한문속담을 주제로 광고 영상을 제작하는 ‘우리는 멀티 플레이어’ 활동에서다. 학생들은 본격적인 촬영을 시작하기에 앞서 촬영할 모습을 그림과 간단한 글, 즉 비주얼 씽킹으로 표현해봤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은 실제 방송이나 영화제작 현장에서도 ‘스토리보드’로 불리며 활용된다.

배 교사는 “준비 없이 촬영을 시작하면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낭비하기 쉬운데, 스토리보드를 미리 만들어두고 그대로 촬영하면 효율적인 진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작품의 완성도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몸으로 한자 표현하며 협동심 ‘쑥’

그렇다면 신체로 한자어를 표현해보는 ‘너와 내가 합체하면 우리’ 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먼저 눈 목(目), 귀 이(耳) 등 신체와 관련된 한자어를 습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기본적인 이론 학습이 이뤄져야 추후 진행되는 활동들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 한자어를 익혔다면 다음은 예비 비주얼 씽킹 단계다. 학생들은 자신의 전신을 그린 뒤 몇몇 신체기관을 한자어로 다시 한 번 써보고, 해당 신체기관에 대해 자신이 가진 장점도 함께 적는다. 눈 목(目) 자를 쓴 뒤 ‘사물을 잘 관찰한다’고 표현하는 식. 이를 통해 비주얼 씽킹의 ‘감’도 잡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도 갖게 된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체 한자를 만들어볼 차례. 모둠별로 준비를 뽑아 8개의 한자를 배부 받고, 이렇게 배부 받은 한자를 몸으로 표현하여 제한된 시간 안에 촬영까지 해내는 것이 목표다. 비주얼 씽킹의 필요성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제한된’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촬영을 진행하려면 복잡한 촬영 현장에서 누구나 촬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파악하기가 쉬운 ‘그림’을 그려두는 사전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가령 여덟 팔(八) 자를 두 학생이 비스듬하게 누워 머리를 맞대는 모습으로 표현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보자. ‘두 학생이 비스듬하게 누워 머리를 맞댄’이라고 글자로 적어 둔다면 어떻게 찍어야 할지 파악하는데 오래 걸리지만, 그림으로 그려둔다면 누구나 빨리 이해할 수 있다. 배 교사는 “깜빡하고 스토리보드를 두고 온 학생들은 좌충우돌을 겪었던 반면, 스토리보드를 토대로 촬영했던 모듬은 차질 없이 착착 진행 해나갔다”면서 “이미 한 번 생각을 시각화하는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실제 촬영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뤄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도 광고 제작자

한문속담을 주제로 광고 영상을 제작하는 ‘우리는 멀티 플레이어’ 활동에서는 비주얼 씽킹이 이전보다 좀 더 심도 있게 활용됐다.

먼저 광고의 특성을 이해하는 시간부터 가진다. 광고와 다른 영상물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 학생들은 교사가 준비한 광고영상을 보며 ‘광고는 짧으며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음은 모듬별로 어떤 광고를 만들 것인지 토론하는 시간. 이 과정에서 광고의 스토리를 정하고, 이를 토대로 스토리보드를 만든다. 이때 배 교사는 학생들에게 8개 칸으로 나누어진 스토리보드 틀을 나누어줬다. 즉, 한 장의 사진을 찍기 위해 한 장의 그림만 그렸던 이전 활동과 달리, 하나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 총 8장의 그림을 그리도록 했던 것. 영상의 ‘스토리’를 스토리보드에 모두 담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촬영이 차근차근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더 많은 그림을 그려야하는 만큼 더 뛰어난 그림실력이 필요한 건 아닐까? 김 교사는 “동그라미와 직선만 사용해 단순하게 사람을 그려도 서로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비주얼 씽킹의 핵심은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 일례로 한 모듬은 매우 단순한 그림만으로 속담 ‘우이독경(아무리 알려주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주제로 안무가의 지도를 따라가지 못해 속상해하는 가수의 스토리를 만들었고, 그래도 노력한다면 좋은 가수가 될 수 있다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배 교사는 “이 모듬의 스토리보드 속 인물은 이른바 ‘졸라맨’ 캐릭터처럼 단순하게 그려졌지만, 영상을 만들고 메시지를 전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서 “그림으로 생각을 표현하고 공유하며 원활하게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이 수업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jiyeon01@donga.com

교사의수업지도 노하우

비주얼 씽킹, 그림 잘 그릴 필요 없다

Q. 수업 운영 시 유의할 점은?

학생들이 그림을 예쁘게 그리는 것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주얼 씽킹의 목적은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업을 시작할 때 학생들에게 “그림을 못 그려도 상관없다. 다른 사람들이 그림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알려주는 것이 좋다.

또 수업 초반에 학생들의 장점을 파악하고 이후 활동부터 역할을 적절히 분배해주면 모듬활동에서 누군가 소외되는 일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아이디어가 기발한 학생,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 만들어진 결과물을 잘 설명하는 학생 등 각각의 장점이 모두 다른데, 이를 십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 경우 학생들의 자존감도 높아진다.

Q. 수업의 효과는?

비주얼 씽킹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긴장감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다. 한문을 어렵다고 생각하던 학생들도 ‘비주얼 씽킹’ 활동을 하자고 하면 자세부터 편안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업을 그림을 그리며 노는 즐거운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비주얼 씽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어야 하니, 자기 목소리를 내는 법, 소통하는 법도 배우게 된다. 자연스럽게 생각이 유연해지면서 창의력이 생기는 것도 긍정적인 효과다.

Q. 이 수업을 활용하려는 교사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비주얼 씽킹은 어려운 교육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선행 수업 자료들을 조금만 참고하면 초보자도 쉽게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한문교과의 경우 한자를 ‘그림’으로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많아 비주얼 씽킹 활동이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다. 그러나 한문교과 이외에 국어·영어·수학 등 학생들이 학습부담을 느끼는 주요 교과에서도 비주얼 씽킹이 적극적으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혹시 교사가 영상 편집을 할 줄 몰라 UCC 제작 수업을 망설이고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영상 편집을 할 줄 아는 학생이 많기 때문. 모둠별로 영상 편집을 할 줄 아는 학생을 한 명씩 배치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편집 방법을 알려주도록 안내하면 학생들은 금방 배우고 따라한다.

▶배정화 경기 도당중 한문교사(올해 2월까지 까치울중에서 근무)